2026년 4월 13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1차 협상 결렬에도 유효한 상방 재료들

한국 증시는 1) 주말 중 미-이란 1차 협상 결렬 소식, 2) 미국 3월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3) 뉴욕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금융주 실적, 5) 국내 외국인 순매수 지속력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600~6,050pt).

주말 중 있었던 이들의 1차 협상은 이란의 핵 보유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하지만 이란이 일부 사안에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2~3가지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나, 중재국인 파키스탄 역시 양국간 대화를 지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외교적인 타협 여지를 남긴 결렬이었으며, 22일(한국시간 수요일 오전)까지 예정된 휴전 기간 동안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 따라서, 이번 1차 협상 결렬 소식으로 월요일 장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련 불안심리가 우위에 있겠지만, 매도 대응을 선 순위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1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트럼프의 최후통첩 시한 연기 발표 이후 협상 기대감 및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기대감 반영되며 상승. 이후 미-이란 2주 협상 소식 발표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속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며 양 지수 상승 마감 (KOSPI +8.96%, KOSDAQ +2.81%)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미-이란 전쟁 불확실성 지속에도 트럼프의 이란 발전소 공격 관련 최후 통첩 시한 연기(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에 따른 양 측 협상 기대감,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강세 영향으로 코스피 상승 출발. 반면, 개별 종목 이슈로 바이오 업종의 투자심리 악화된 결과 코스닥은 하락세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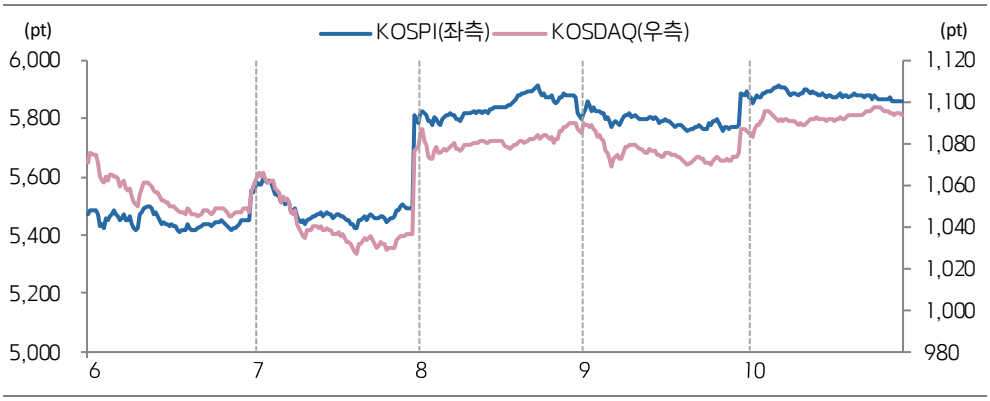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은 매출액 133조, 영업이익 57.2조 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41.7%, 185% 증가. 메모리 사업 호조 속 ASP 폭등, 고환율 레버리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약 40조 원)를 40% 이상 대폭 상회.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이후 4월 말 예정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기대감 반영되며 반도체 상승흐름 지속

주 초반 이란 최후통첩 시한 직전에 미-이란 양 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 휴전 합의에 동의. 금번 휴전 합의는 단발적인 공격 유예와 같은 일시적 성격이 아니라 양 측간 근본적인 종전 협의를 위한 2주 간의 합의 단계라는 점에서 유의미. 특히, 호르무즈 해협 점진적 개방 기대감 부각되자 중동 전쟁 피해 증시였던 일본과 한국 증시 상승폭 두드러짐. 다만, 이란 핵문제, 추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방안, 전쟁 이후 재건 비용 등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이 미국측 이해관계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협상 불안감도 일부 잔존하는 상태

업종별로 건설(+19.93%), 전기/전자(+12.18%), 통신(+10.58%), 제조(+9.44%), 화학(+9.34%)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락/문화(-2.57%), 종이/목재(+0.99%), 제약(+1.14%), 운송장비/부품(+1.89%), IT 서비스(+2.59%)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5조 315억원)은 전기/전자(+50,437억원), KOSPI(+50,315억원), 제조(+48,792억원), 화학(+4,231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4,482억원)은 기계/장비(+2,928억원), 금융(+2,864억원), 화학(+1,672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 월 13 일	월	미국	기존주택매매	3 월	4.08m	4.09m
		회의	IMF/WB 연례회의 (~18 일)			
		실적	골드만삭스			
4 월 14 일	화	중국	무역수지	3 월	$107.10b	$90.98b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3 월	-	98.8
			PPI (MoM)	3 월	1.2%	0.7%
			근원 PPI (MoM)	3 월	0.5%	0.5%
			PPI (YoY)	3 월	-	3.4%
			근원 PPI (YoY)	3 월	-	3.9%
		실적	제이피모간체이스, 존슨앤존슨, 웰스파고			
4 월 15 일	수	한국	실업률	3 월	-	2.9%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4 월	-	38
			뉴욕 제조업지수	4 월	-	-20.0%
		실적	ASML 홀딩,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간스탠리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4 월 16 일	목	중국	산업생산 (YoY)	3 월	5.3%	5.2%
			소매판매 (YoY)	3 월	2.3%	0.9%
			고정자산투자 (YTD YoY)	3 월	2.0%	1.8%
			경제성장률 (YoY)	1 분기	4.8%	4.5%
		EU	CPI (YoY, 최종치)	3 월	-	2.5%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4 월	-	18.1
			산업생산 (MoM)	3 월	-	0.2%
		실적	TSMC			
		공개	연준 베이지북 (오전 3 시)			
		발언	보우먼 미연준이사·뉴욕 연은 총재			
4 월 17 일	금	EU	무역수지 SA	2 월	-	12.1b
		파생	미국 옵션만기일			
		실적	넷플릭스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주말 중 미-이란 1차 협상 결렬 소식, 2) 미국 3월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3) 뉴욕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금융주 실적, 5) 국내 외국인 순매수 지속력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600~6,050pt).

10일(금) 미국 증시는 미-이란 1차 협상 관망심리 속 3월 CPI 안도감 vs 4월 기대인플레이션 불안감 등 엇갈린 지표 결과, TSMC 호실적에 따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3%) 강세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혼조세 마감(다우 -0.6%, S&P500 -0.1%, 나스닥 +0.4%).

현재 진행형인 미-이란 전쟁에 대한 1차 인플레이션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3월 소비자물가(CPI)는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 3월 헤드라인 CPI는 3.3%(YoY)로 2월 2.4%에서 급등했지만,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시장의 컨센서스(3.4%)를 하회했다는 데서 기인. 근원 CPI(YoY, 2.6% vs 컨센 2.7%) 역시 예상보다 높지 않게 나왔다는 점도 마찬가지.

반면, 4월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4.8% vs 컨센 4.2%) 전쟁발 가솔린 가격 급등 불안 등으로 쇼크를 기록한 상황. 통상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2개의 인플레이션 지표 이벤트는 중립 수준의 결과에 국한됐던 것으로 판단. 동시에 이번주 예정된 3월 생산자물가(PPI)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음. 기대인플레이션과 유사하게, 생산자 물가 역시 직접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

당분간 시장은 인플레이션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며, 그 변동성의 진폭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미-이란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을 전망. 이런 측면에서 주말 중 있었던 이들의 1차 협상은 이란의 핵 보유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더욱이,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 사태로 유가가 재차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

하지만 이란이 일부 사안에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2~3가지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나, 중재국인 파키스탄 역시 양국간 대화를 지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외교적인 타협 여지를 남긴 결렬이었으며, 22일(한국시간 수요일 오전)까지 예정된 휴전 기간 동안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 따라서, 이번 1차 협상 결렬 소식으로 월요일 장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련 불안심리가 우위에 있겠지만, 매도 대응을 선 순위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

증시 내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금융주 실적의 중요성을 높게 가져갈 필요. 중동 전쟁 이외에도 사모대출 문제 역시 시장 참여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잔존해 있기 때문(FT 데이터상 1분기 사모대출 시장 환매 요청 금액은 3,000억달러로 전체 사모대출 자산의 7%). 연준 또한 최근 미국 은행들에게 사모대출 익스포저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결국, 이번 1분기 실적은 트레이딩, IB 사업 호조 등으로 호실적이 예상되나, 이보다는 연체율 데이터나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사모대출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성 여부도 국내 증시의 고유 관전 포인트. 지난 한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0조원 순매수하면서, 주간 기준 8주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한 점이 특징적인 부분.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코스피 1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달러/원 환율 폭등세 진정(환차손 우려 완화) 등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의 유인으로 작용했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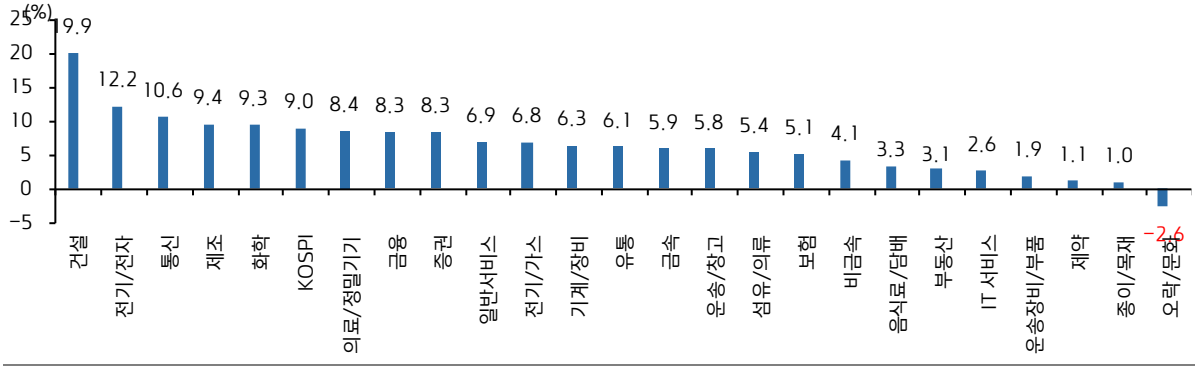
물론 미-이란 1차 협상 결렬 소식이 외국인 수급 불안을 재차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전쟁 리스크 자체는 정점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 연초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50조원대 순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주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 포지션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요인. 이를 감안 시, 향후 중기적인 외국인의 수급 향방은 "순매수를 통한 한국 증시 비중 확대"쪽으로 베이스 경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5,858.87	1.4	9.0	5.9	39.0
대형주	6,234.88	1.4	9.5	5.8	42.4
중형주	4,474.32	1.1	5.3	6.9	20.2
소형주	2,807.01	1.9	3.6	4.9	11.5
코스피 200	878.78	1.5	10.1	6.8	45.0
코스닥	1,093.63	1.6	2.8	-3.9	18.2
대형주	2,658.03	0.8	2.0	-9.6	18.1
중형주	1,112.02	2.3	3.6	1.5	23.6
소형주	3,045.46	2.9	4.0	6.8	18.3
코스닥 150	1,866.95	0.6	2.7	-7.5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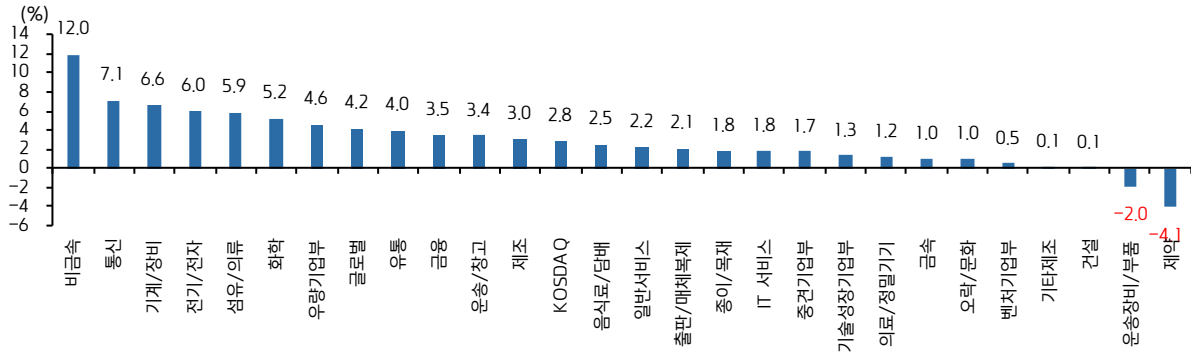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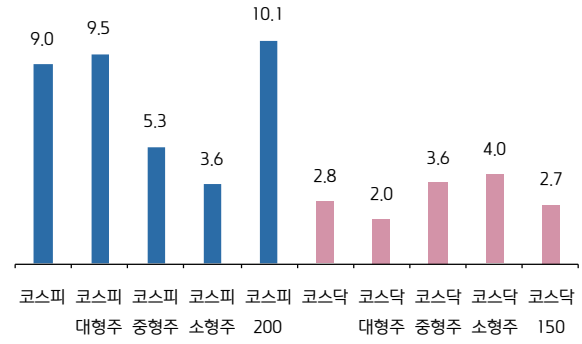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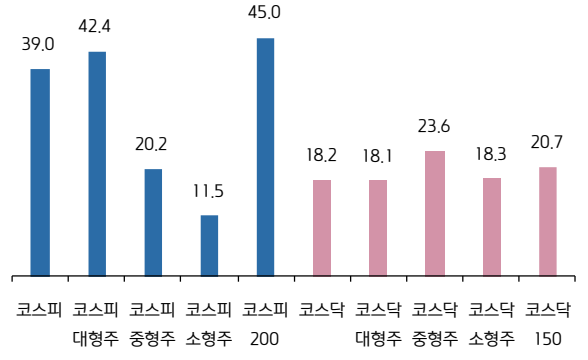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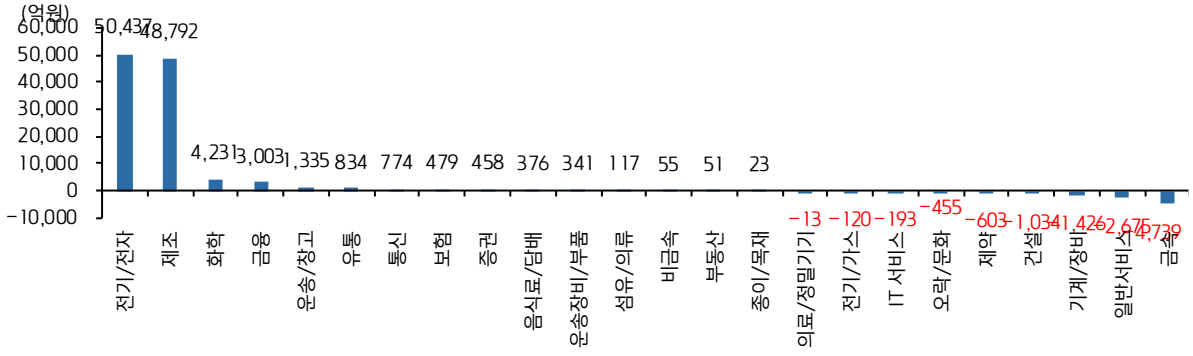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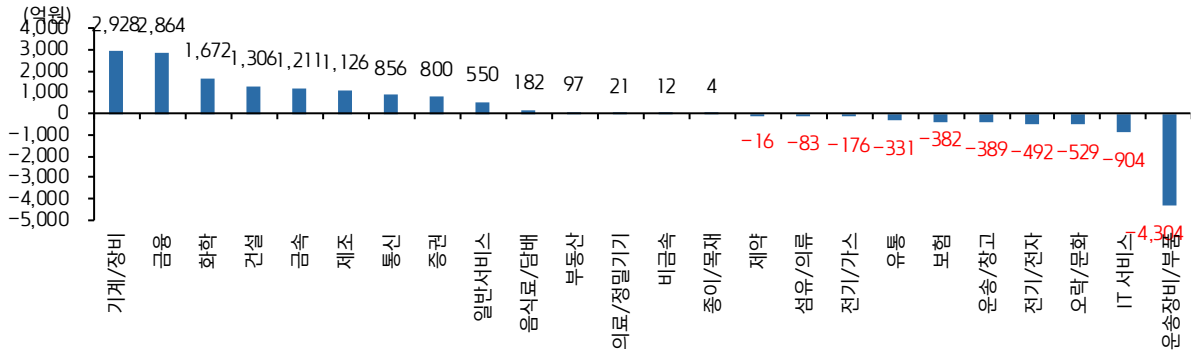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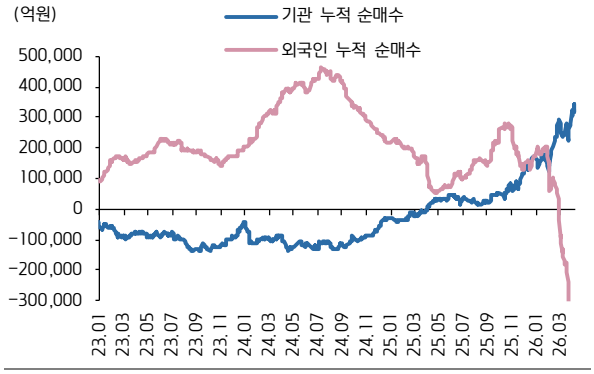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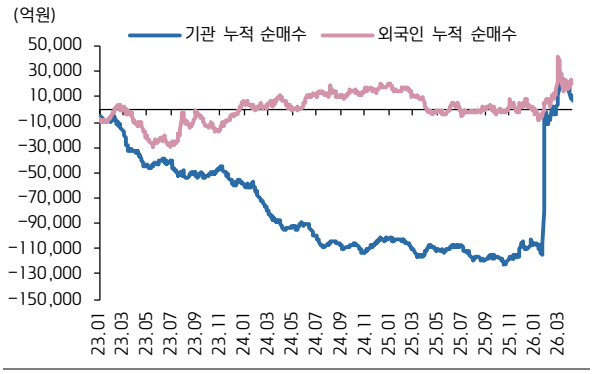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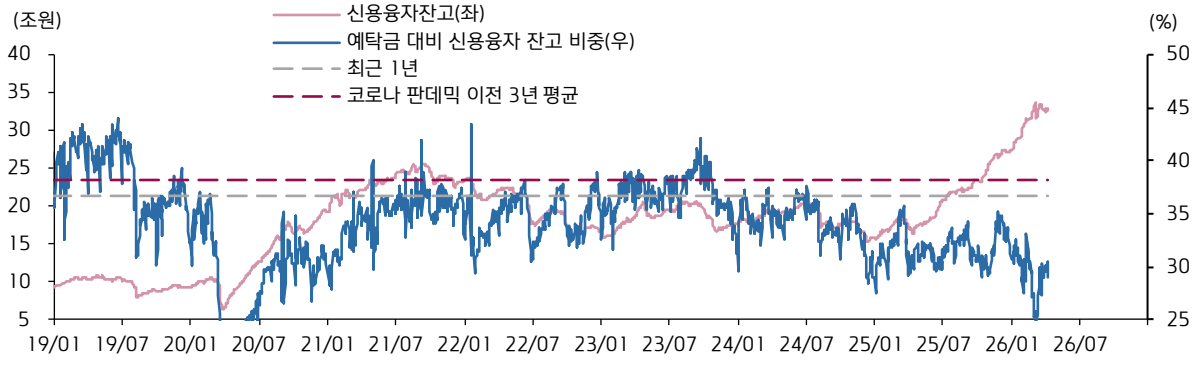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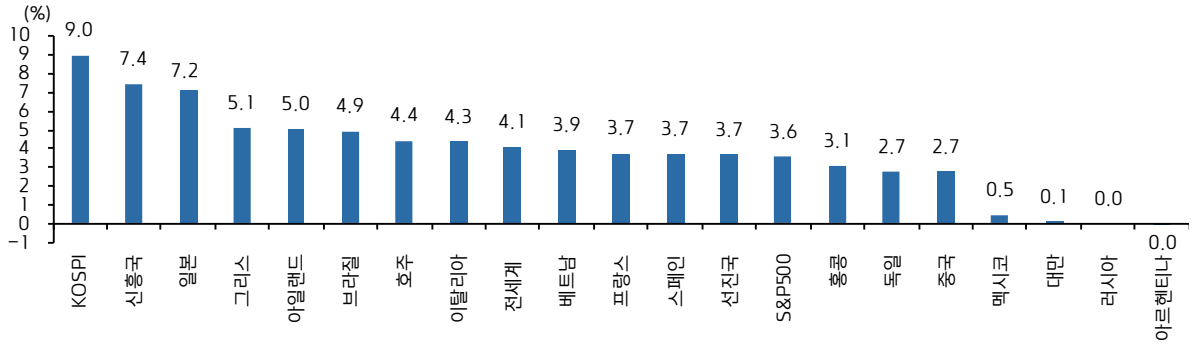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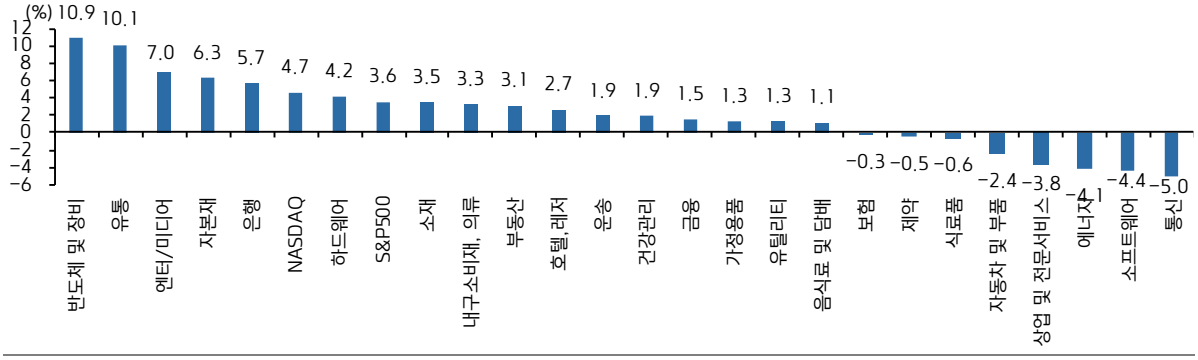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